

현 장 방 문 결 과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 일 시 : 2005. 5. 26(목) 10:00~14:00
- 장 소 : 금오종합사회복지관
- 참 석 : 9명(손홍섭 위원장, 이상진·전인철·윤종석·이용수·박세채·
김택호·허 복·박배원 위원)

□ 방문결과

《건의사항 및 시정 촉구사항》

- 금년도 경북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사업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증대로 예산지원을 요망하고 있음.
- 도내 기존 지원되고 있는(경주,포항,안동) 타시군과 비교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강구바람.

□ 현장 대화내용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일반현황 설명)

(설명자 : 부관장 진오스님, 팀장 서현스님, 운영부장 김휘연)

○운영부장 김휘연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경주, 안동, 포항은 예산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곳은 법인에서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니 큰 애로사항임.

아동학대예방센터 예산 지원을 포항센터와 동일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으며, 참고로 포항의 경우 도비 5,600만원, 시비 3,700만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음.

○위원장 손홍섭 평소 관심사항이나 같이 걱정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람.

○이용수 위원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 예산을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데 시비 3,000만원이 지원되면 좋겠음.

○전인철 위원 안동, 포항 경주의 경우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운영부장 김휘연 6:4의 비율임

○전인철 위원 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나?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금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정승기 때문에 추경에 처음 세우려는 것임.

○이용수 위원 3년전부터 사업은 했지만 인가는 올해 받았음.

도비가 왜 1,000만원 되었나? 도비가 1,000만원 이라도 시비는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됨.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도 될 수 있으나 올해는 처음이라서 그렇음.

○전인철 위원 예산지원 관계가 제일 큰 애로인 것 같은데 부족분 2,000만원 더 올려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에 올렸으면 함.

○위원장 손홍섭 타복지 재단의 법인 부담금하고 금오복지관의 법인 부담금 비율은 어떤가?

○운영부장 김휘연 복지관 운영비를 예를 들면 타 복지관 2억5,000에서 3억 정도인데 저희는 4억5,000정도이며 후원금이 적으면 법인 부담비율이 높아지며 타 법인에 비해 여기가 법인 부담비율이 높음.

○위원장 손홍섭 법인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법인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예산을 추경예산에 처음 올리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알겠음. 2,000만원을 더 올려야 되는데 기획실과 협의하겠음.

○부관장 진오스님 시에 알아본 결과, 시에서 부담비율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되었다고 해서 도에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은 풀

어 달라고 얘기를 했음. 예산 지원이 없어도 사업은 하는데 지금 관심을 가져줄 때인 것 같으며 시에서는 없던 예산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인데 예산지원을 해 주었으면 함.

○이용수 위원 예산 지원과 관계없이 사업은 한다고 하는데 예산 뒷받침은 되어야 함. 복지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님들 관심이 많음.

○위원장 손홍섭 많은 관심을 가지겠음. 다른 사항 없으면 현장을 보겠음.

현 장 방 문 결 과 보 고 서

(산업 건설 위원회)

□ 일 시 : 2005. 5. 25(수) 11:00 ~ 12:00

□ 장 소 :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 현장(신평동 39-1번지)

□ 참 석 : 8명(변우정 위원장, 이강덕 간사, 임성수·정재화·문영덕·백옥배·정성기·김익수 위원)

□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예방 대책 미흡
 -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대지와의 고도편차 해소대책 수립
 - 저지대인 기존대지내의 우·오수 대책 수립
 - 기존대지의 진·출입로 확보대책 수립
 - 시공자(동광주택)과 토지소유자간 협의에 따른 민원해결책 수립

□ 주요내용

■ 현황도 설명

- 문영덕 위원 : 현재 개설중인 도로 토지소유자는 누군가?
- 건축과장 김시배 :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음.
- 문영덕 위원 : 그러면 민원인의 뜻에 따라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 김익수 위원 : 1997년에 시에서 보상만 하고 업자한테 땅을 주면서 포장하라고 했었음. 상가 특혜를 주고 했는데 10년동안 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시민들이 다니지 못하고 있음. 지금 와서 추진하려고 축대를 쌓고 하니 주위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민원인의 요구는 사람이나 경운기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록 해 달라는 것임. 10년 전에 담당을 했던 공직자가 잘못을 한 것인데 10년 동안 주민들이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지내 왔음.

○ 임성수 위원 : 현재 도로를 낮추면 문제점이 있는가?

○ 김익수 위원 : 문제점은 없음.

○ 이강덕 위원 : 지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함.

○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 구배가 12% 정도 나는데 민원인의 요구는 수정을 해서 구배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현재 차이가 4m 남. 현재 타절한 구간의 높이 차가 4m인데 자동차가 못 다니고 있음.

○ 이강덕 위원 : 완만하게 구배를 조정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차량 통행도 가능하다고 봄. 상단 부분은 감수를 하더라도 하단 부분에는 조정이 가능하고 완만한 구배로 하면 들어갈 수 있음.

○ 정재화 위원 : 민원인의 요구대로 낮추면 안 되는가?

○ 김익수 위원 : 공사업체가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니까 민원인이 의회에 탄원을 한 것임.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었는데 성의를 안 보였음. 업체측과 협의를 봐서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바람.

○ 문영덕 위원 : (현황도를 가리키며) 현재 40전 정도 내려도 문제는 없음. 이렇게 하면 아파트 건설에도 문제가 없음.

○ 김익수 위원 : 근본적인 문제는 업주와 상의를 해서 해결하면 됨.

○ 위원장 변우정 :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있어야 함.

○ 정재화 위원 :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김익수 의원 : 건축과에서 성의를 안 보임으로 해서 민원인이 화가 나서 원상복구 요구를 한 것임. 최대한 서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 중재하는 방안으로 협의해 보겠음.

○ 민원인 김복룡 : 감독관인 시에서 알아서 해야 함. 업자와 본인사이에

는 해결이 안 남. 이 길이 건축과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 문영덕 위원 : 이 땅을 돈워주고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됨. 아파트 업체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감정이 생긴 것임.

○ 임성수 위원 : 아파트 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 편익이 우선이 되어야 함.

○ 문영덕 위원 : 감정 문제로 불거진 일임.

○ 정재화 위원 : 건축과와 도시과가 서로 협의만 되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서로 미루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임.

○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 지주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겠음. 지형도 결정된 상태고 아파트 공사도 완공단계임. '9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 동네 자체가 굴곡이 아주 심한 지역임.

○ 정성기 위원 : 합의 후 산업건설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바람.